국내 최대규모 토굴인 순창발효소스 토굴이 전통장류를 테마로한 미디어아트 체험관광지로 발돋움 한다.

순창토굴 체험 공간 탈바꿈

재료 체험존·전통장 체험존·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쇼존 등 구성 계획

국내 최대규모 토굴인 순창발효소스 토굴이 전통장류를 테마로한 미디어 아트 체험관광지로 발돋움 한다.

군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추진한 '차세대 실감콘텐츠 개발지원' 공모사업에 전라북도와 순창군의 전통장 실감콘텐츠(미디어아트)체험 테마존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에 유일하게 전통장 등을 장기숙성하기 위해 건립된 발효소스토굴에 순창의 고유한 전통문화자원을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해 체험과 관광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라북도는 발효소스토굴을 전북의 관광자원화 활용과 함께 전북의 미디어콘텐츠 사업 등을 확대할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며, 순창군은 전통장을 활용한 체험형태 로 디지털미디어화 하는 등 발효소스 토굴을 순창의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이 계획하는 미디어 아트는 토굴 내 저장공간에 무, 도토리, 콩, 밀, 누룩 등 전통장의 다양한 재료를 체험자가 만지면 동작인식센터가 작동하여 재료에 대한 미디어아트가 노출되는 재료체험존과, 장류사업소가 복원한 고려시대 전통장(상실장, 청근장, 기화장 등)을 얼굴인식 등을 통해 체험자가 직접 미디어아트 형태로 담아보는 전통장 체험존, 자신이 체험한 콘텐츠를 융합하여 미디어 아트쇼로 재구성해 노출하는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쇼존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와 순창군은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발효소스 토굴에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전통장을 활용한 체험시설공간을 운영하게 된다.

황숙주 군수는 "그동안 장류산업이 산업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문화 및 콘텐츠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순창만의 장점을 콘텐츠로 개발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북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홍보영상 공모전 발표

최우수상 고귀한 역사의 숨결, 고창읍성 이경철 외 1인 등 선정

고창군(군수 박우정)의 대표관광지인 고창읍성을 널리 홍보하고 판소리 발상지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홍보영상(UCC) 공모전' 결과가 발표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고창읍성과 판소리, 과거와 미래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홍보영상(UCC)' 공모전에 26명이 총 29점의 작품을 접수했다.

심사는 전북과학대학교 방송연예미디어과 교수, 전주MBC 방송국 PD, 영상 전문 제작 업체 미디어맥스,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동영상 전문강사 등 동영상(UCC) 전문가 4명이 진행했다.

심사위원들은 고창읍성의 아름다운 경관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판소리 발상지로서 고창군의 위상을 정립하며 판소리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 고창읍성과 판소리를 연계해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을 잘 드러내는 작품 등 주제 적합성 30점, 효과성 40점, 창의성 30점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날 심사 결과 최우수상에 '고귀한 역사의 숨결, 고창읍성'(이경철 외 1인), 우수상에 '내 고향 고창읍성 사랑가'(이승주 외 1인), '지친 삶 속의 휴식, 고창읍성'(이윤재), '고창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축제 고창 모양성제'(윤치영)가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200만원이,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각각 시상됐다.

선정된 작품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문화관광 코너(http://www.gochang.go.kr/culture/index.gochang)에서 오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고창읍성과 판소리의 본향으로서의 고창군의 모습이 잘 담긴 작품들이 선정됐다"며 "앞으로 선정된 작품들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고창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목재문화체험장 준공 관광명소 자리매김

목재교육관·놀이방 등

임실군이 사선대관광지 일원에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이 준공돼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룬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 사업비 52억원이 투입된 '목재문화체험장'은 지난 2014년 6월 착공해 22일 준공됐으며 9,000여㎡ 부지에 연면적 1,500㎡규모로 전시관, 목재교육관, 목재놀이방, 실습동 등 8동으로 구성됐다.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실 및 전시실을 통해 어린이의 꿈과 상상을 실현하는 재미있는 놀이방 및 생활용품과 공예품을 만드는 공방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나무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비롯해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주변에 자리한 청소년수련관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목재체험과 연계된 전시시설물 설치 및 운영프로그램 수립절차를 거쳐 오는 2017년 4월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순창군 작은영화관 누적관객 6만 돌파

1년간 125편 영화 3798회 상영

순창군 작은영화관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이 최근 개관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누적관객 6만명을 돌파하며 군민들의 문화충전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은 지난 1년간 125편의 영화를 3,798회 상영했다. 관람객 단순 수치로만 보면 순창군민 1인당 년 2회 이상 영화를 관람한 셈이다.

실제 작은 영화관은 군민들이 그동안 대도시로 나가야만 영화를 관람할 수 있었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은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최신영화를 대도시와 같은 시기에 볼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영화 기획전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고 순창경찰서 및 드림스타트팀과 협약을 추진해 소외계층에게 영화관람료 할인 등 혜택을 주는 등 지역공헌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순창 작은영화관 측은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영화관 개관 1주년 기념으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작은 영화 기획전을 통해 무료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설주원 문화관광과장은 "내년부터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영화관람료 할인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작은영화관이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에코시티 종합대상 3년 연속 수상

상하수·대기관리 등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제5회 친환경도시대상, 에코시티 시상식'에서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종합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29일 서울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개최된 시상식은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주최로 개최됐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도시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자연환경의 보전과 보존이라는 생태적 건강성, 맑고 깨끗한 상하수와 대기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폐기물과 오염원 처리를 통한 시민생활의 쾌적성과 안전성,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고, 희망적 국토발전의 지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친환경도시대상을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선정하고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은 환경 보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의 날 기념행사 개최, 기후변화 환경교육 추진, 운곡습지개선지역 복원, 고창 자연마당 조성,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등 환경의 모든 분야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상호 부군수는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종합대상 수상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잘 보전·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건설을 위해 군민과 함께 더욱 힘차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지리산 유스캠프 MOU 체결

남원시는 단일 기관으로는 최대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 있는 지리산 유스캠프 남원수련원(원장 이종범)과 수학여행단 유치 및 지원에 대한 상호협력을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2009년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에 설립된 남원청소년 수련원은 자연친화적 심성교육과 팀워크를 고양하는 프로그램으로 부산, 경남, 전남 등지의 연 6만여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에 이어 2016년에도 여성가족부로부터 최우수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매회 1박2일에서 2박3일 과정의 청소년 유스캠프는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를 통해 다양성과 우리 문화를 체험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각급 학교의 관심을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MOU 체결을 통해 "그동안 수련원 영내 활동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접촉하는 외연확장으로 연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순기능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로컬플러스

임실적십자사 김장김치 나누기

대한적십자사 임실지구협의회(회장 백혜신)는 김장철을 맞아 29일 군민회관에서 '희망풍차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원 및 자원봉사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배추 500포기를 김장하고 저소득 100세대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백혜신 회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과 정을 전할 수 있어 마음이 훈훈하다"며 "앞으로도 희망풍차 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임실지구협의회는 헌혈홍보 활동, 주거환경개선 지원, 위기가정 긴급구호물품 전달 등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LED조명교체 추가설치

순창군이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의 생활환경을 밝게 해주는 LED조명교체사업 추가설치를 추진한다.

군은 9월부터 10월까지 관내 경로당 369개소의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경로당의 생활환경을 밝게해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존에 추진시 하나의 경로당에 3개씩 LED를 설치하였으나 큰 경로당의 경우 추가 설치 요청이 있어 왔다.

군은 예산 한도내에서 현지 조사를 거쳐 추가 설치를 결정한 것. LED조명은 친환경 소재로 수은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사용과 폐기 시 안전하고, 형광등 대비 150%의 에너지효율성을 가져 전기요금의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어, 가격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보급확대 되고 있는 추세다.

허관욱 지역경제과장은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는 만큼, 12월 중순 이전에 추가 설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농어촌공사 청렴지사 도약 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29일 지사장실에서 공사 윤리경영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사장, 농지은행부장, 지역개발부장, 수자원관리부장을 중심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렴지사 도약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윤리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위원회의 내용으로는 부서 윤리경영 실천계획 이행·점검,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사항 점검, 부적절한 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 업무수행 관련 윤리적 딜레마 발생시 해결책 공동 모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사 직원들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공사가 자체적으로 매달 발간하는 청렴소식지 청자생존을 활용하여 매달 윤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박재근 지사장은 윤리위원회의 대표로서 전직원이 청렴윤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윤리위원회 활동 및 윤리경영 실천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구독문의 288-9700